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내외수 동반 침체 우려 현실화
- 美 소비자신뢰지수 큰 폭 하락

경영 노트

- GE 이멜트 회장의 메시지

사회 트렌드

- 백수모임, NGO로 인정
- 영국, '피트니스 장관' 신설

저널 브리프

- 사우디아라비아, '메가 프로젝트' 가동

洗心錄

- 드러커의 리더십 교훈

□ 내외수 동반 침체 우려 현실화

- 7월의 생산,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7월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는 내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나타남
 - 내수 부문의 경우 7월 산업생산과 소비재판매가 현대차 파업, 수해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기비 3.9% 및 5.0% 감소함
 - 또한 7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확대 등으로 6월의 9.4억 달러 흑자에서 2.1억 달러 적자로 반전됨
 - 한편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6월의 99.8에서 7월에 99.1로 떨어져(올해 1월 100.8을 고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이러한 경제 지표 부진은 현대차 파업, 수해 등에 따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의 침체세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하강 신호라고 주장함

□ 美 소비자신뢰지수 큰 폭 하락

- 8월 美 컨퍼런스보드 (Conference Board, 1995년부터 美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 소비자신뢰지수를 조사 작성 기관)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시장 예상(102.7p)보다 낮은 99.6p로 하락하여, 2005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의 의미는 기준치 100을 하회할 경우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임
 - 이번 소비자신뢰지수의 급락은 고유가 지속, 주택 경기 둔화,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美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내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의 소비 수요가 감소할 경우 수출 경기마저 급속하게 하강하게 되어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우려가 존재함

□ GE 이멜트 회장의 메시지

- GE의 이멜트 회장은 지난 21일 미국 크로톤빌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재계 임원 20여명에게 리더십, 보상, 기업 경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
 - 2005년부터 GE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크로톤빌 프로그램에 1년에 1차례 한국 대기업의 고위 임원 20명을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 (① 리더십) 리더십은 시대에 맞아야 함을 강조하며 사업 규모에 맞는 재무 관리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함
 - (재무 관리) 적극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CEO의 중요한 역할임을 설명함
 - (인재 육성)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GE는 매년 10억 달러를 인재 육성 교육에 투자하고 있음

- (② 보상) 단순한 연봉 인상(지급)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능력을 키울 기회(머리)와 자긍심(가슴) 고취를 강조함
 - 보상이란 조직에 인재가 남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GE는 '상금 지정기부 제도'를 운영, 직원의 사회적 자긍심까지 배려하고 있음
 - '상금 지정기부 제도'란 연봉 인상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금을 수상자가 특정 사회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자동적으로 기부하게 하는 제도임

- (③ 기업 경영) 글로벌화와 기업 운영, GE의 미래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글로벌화) 진정한 글로벌화는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되, 그 나라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과 해당 국가의 상생을 강조함
 - (기업 운영) 대기업은 프로세스만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구성원간의 신뢰와 정보의 공유성을 강조함
 - (GE의 미래상) 10년 후, GE를 금융 40%, 헬스케어 20~30%, 엔터테인먼트 10%의 매출 구조를 가진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함

□ 백수모임, NGO로 인정

- 20, 30대 청년 실업자 모임인 ‘전국백수연대’가 설립 9년만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NGO로 인정받음
 - 이로써 백수연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며 매년 1,000만~3,000만 원 가량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온라인 회원 8,500명, 오프라인 회원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함
- 사회 범죄나 도박 등의 유혹,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백수들에게 오프라인 상의 여러 모임들,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선 백수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함
 - 여기에서는 ‘청년 구직 상담 서비스’는 물론 청년 실업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전문가와 청년 실업자를 일대일로 매칭시켜 고민을 조언하고 지도) 등을 준비
 - 이외에 실업상태 속에서 위축된 인간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회관계 적응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 함

□ 영국, ‘피트니스 장관’ 신설

- 영국이 골칫거리로 떠오른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장관’(Minister for Fitness)이란 직을 신설
 - 우리말로 바꾸면 ‘건강운동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이 전담 장관직까지 신설한 것은 비만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임
 -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3년 22%였던 비만 남성 비율은 2010년 33%까지 치솟게 된다고 함
 - 또한 2010년이면 2~15세 어린이 중 여아는 22%, 남아는 19%가 비만이 될 것으로 예측
 - 가뜩이나 재정 부족에 허덕이는 영국국민건강보험(NHS)이 지금도 매년 수십억 파운드 이상을 비만이 부른 질병 치료에 지출하고 있는데, 비만 인구가 더 늘면 NHS에 미칠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계산도 작용함
- 영국 정부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을 바꿔 질병을 예방하자는 ‘작은 변화, 큰 차이 운동’(Small Change Big Difference Initiative)도 하고 있음
 - 블레어 총리가 직접 나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야채와 과일 섭취 늘리기 등을 강조

□ 사우디아라비아, ‘메가 프로젝트’ 가동*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5년 5월 경제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에서 민간 참여에 의한 산업 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Mega-Project)’ 투자 계획을 발표
 - (경제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 개최) 200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제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유, 가스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해외투자자들에게 합자 투자를 제안
 - (메가 프로젝트의 내용) Saudi American Bank(Samba)는 석유화학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총투자 규모 2,83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계획
 -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 육성: 투자 분야는 원유와 가스 690억 달러, 국방 488억 달러, 석유화학 453억 달러, 얀부와 주베일 산업 도시 인프라 개발 407억 달러, 기타 분야가 약 90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가 총투자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정학적 위험 대비: 국방투자가 두 번째로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최근의 이란핵 문제 및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의 지정학적 위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으로 비롯됨
 - (메가 프로젝트의 목표)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 도시 육성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라는 양대 목표를 갖고 있음
 - 산업 도시 육성: 전략적으로 석유 부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 다각화를 위한 산업 도시를 육성
 - 민간 부문 참여 제안: 민간 부문의 참여 비중을 확대
- (한국에 대한 영향)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 실시는 막대한 규모의 오일 머니(Oil Money)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 프로젝트 참여 및 해외 합자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대비 필요)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적극적인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동 Oil Money 획득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ECONOMY21』 (2006.09.05)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드러커의 리더십 교훈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09~2005)는 자신에게 결정적인 가르침을 준 사람이 셋 있다고 했는데, 그는 이들로부터 리더십에 관한 다섯 가지 교훈을 배웠다.

첫째, 사람들이 지닌 장점에 따라 다르게 대하라. 부하 직원들이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당연히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기준은 높이 설정하되, 일에 대한 재량권과 책임감을 부여하라. 일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엄격한 규율은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에 대한 자율성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맡은 업무에 대해 창의적이고 성과 달성에 적극적이며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다.

셋째, 업무 평가는 정확해야 하며, 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업무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 하며 이것이 피드백이 되어 향후 개선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 업무 평가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이 아니다. 그 자체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다.

넷째, 사람들은 가르칠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예기(禮記)』에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쳐 본 뒤에야 막혔던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부하들에게 진정으로 배우게 하려면 남을 가르쳐 보라고 권하라.

다섯째, 실질적인 리더는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호감을 받을 필요는 없다. 드러커에 의하면 리더들은 성과를 위한 실적과 책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인간적인 호감에 연연해 일을 그르치지는 않는다. 관계에 얽매어 성과를 놓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 윌리엄 제임스(1842~1910) : 미국의 심리학자, 철학자